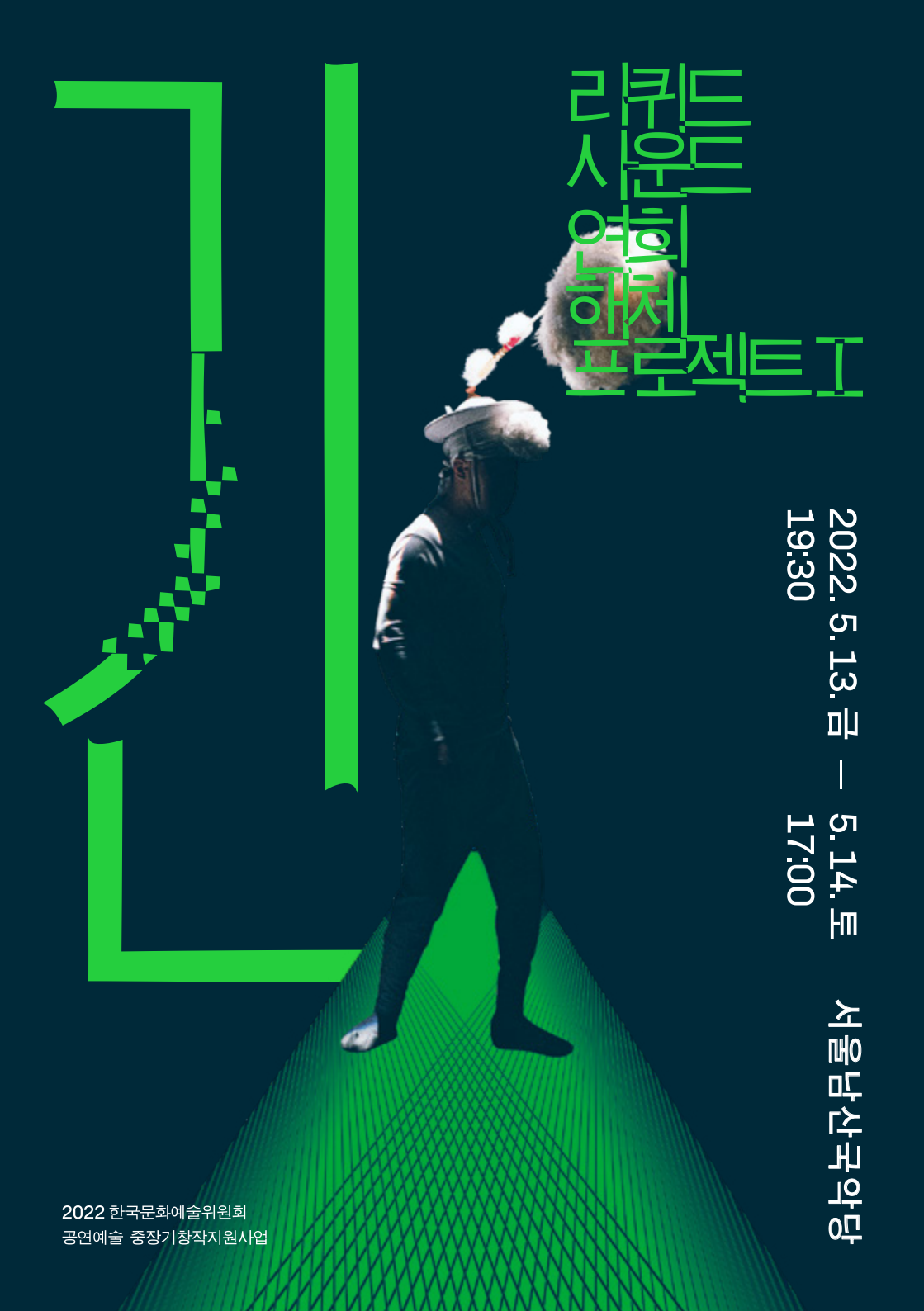

리퀴드 시운의 연희 해체 프로젝트 I
2022. 5. 13. 금 — 5. 14. 토
19:30 17:00
서울남산국악당
202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사업

리퀴드 사운드 연희 해체 프로젝트 I

2022. 5. 13. 금 — 5. 14. 토
19:30 17:00

티켓
전석 30,000원

예매
인터파크티켓 1544-1555

문의
서울남산국악당 02-2261-0500

서울특별시 LIQUID SOUND INSIGHT MOTION 서울남산국악당 Seoul Namsan Gukakdang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본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사업 지원을 받았습니다.

CONTENTS

작품 소개 04

연출가의 글 * 이인보 06

안무가의 글 * 심주영 08

작품 내용 10

무대 디자인 16

컨셉 스케치 17

공연 스케치 18

리퀴드 사운드 20

만드는 사람들 22

작품소개

긴: 연희해체프로젝트 I

전통 연희가 동시대의 공연이 되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할 수 있을까? 연희의 중심 요소, DNA는 무엇이고 현대의 색깔에 맞게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전통 연희의 현대적 공연을 만들기 위해 전통적인 요소를 수용하여 해체와 재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해체란 관습적인 것, 기존에 확실하다고 받아들이는 것, 진리라고 보는 것에 의문을 던지는 것이다. 지금 시대에 부합하는 연희 공연을 창조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덴티티의 재구축과 과감한 생략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것이 이번 작품의 주제이다.

몸, 그리고 동작의 생명력 / 연희의 DNA 찾기와 변이

타악기와 상모를 벗은 연희자들의 몸짓과 동작은 공연예술에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까? 혹시 상모와 악기라는 수단에 갇혀 참신한 창작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상모가 더 이상 돌지 않고 악기가 더 이상 소리내지 않을 때 남는 것은 무엇인가?
풍물의 기본 요소 중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집중할 소재는 발림과 몸짓 : 행(行) 그리고 연희의 오브제(복식과 상모, 사자탈)이다. 발림자체와 오브제에 생명력을 더해 지금 Liquid sound의 언어로 표현한다.

연출가의 글

이인보 리퀴드 사운드 대표/연출가

2016년 출범한 리퀴드사운드 대표로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컴퓨터 음악과 바로크 음악, 무대설치미술,
현대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협업하여 활동하고 있다.

주요작품

Relation
무용극 - 보이지 않는 경계
촉각 콘서트 다섯가지 기억
두 고음악 - 음으로 통하다
긴: 연희해체 프로젝트 등

긴: 연희해체프로젝트 I 은 “전통연희가 현대의 무대 위에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한 리퀴드 사운드의 네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리퀴드 사운드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만나 협업하기 위해 취해야 할 자세를 고민합니다. 이미 완성되어있는 예술인 전통연희가 다른장르의 예술과 만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자리를 내어주고 가지고 있는 것을 덜어내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해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연희에서 덜어낼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오히려 덜어내고 남겨진 순수한 연희의 DNA를 기반으로 현대 무용수들과 협업한 작업입니다.
연희자와 현대 무용수가 무대 위에서 같은 에너지로 존재하기 위해 각자의 훈련 방식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거치고, 연희 오브제들과 기술, 동작 등을 현대무용 어법으로 해석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통해 공연이 완성되었습니다.

전통 길놀이의 공간을 패션쇼 같은 현대적 무대로 해석하였고, 가까운 거리에서 연희자들이 하나씩 해체하는 오브제와 동작들, 그것들이 변해 움직임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보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연희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안무가의 글

심주영

2011년 무용공연 '푸리'로 데뷔하여 현재 무용, 연극, 연희, 서커스 등 다양한 장르에서의 안무가 및 퍼포머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작품

무용 - 연희룸_춘앵이와 처용이
연극 - 베로나의 두신사
연희 - 긴: 연희해체 프로젝트
서커스 - 하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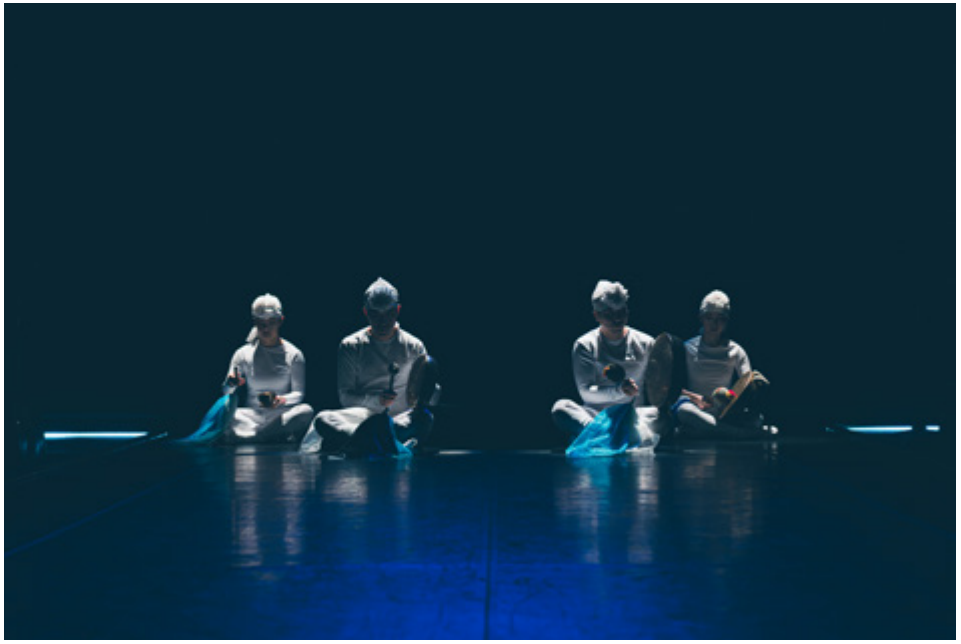
처음 연희해체프로젝트 <긴>의 안무를 시작하면서 전통을 해체한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작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을 해체한다는 것은 전통을 없애거나 폄하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전통을 재해석하여 현시대에 공존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찾아보고 전통에 대해 한 번 더 고찰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움직임의 전반적인 모티브는 상모를 돌릴 때 몸의 쓰임인 굴신에서의 바운스(Bounce)를 시작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상모를 돌리기 위해 꼭 필요한 무릎의 운동성을 활용하여 상모라는 도구를 제외하고 남은 몸의 형태에서 어떻게 동작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움직임을 구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상모상을 몸으로 어떻게 만들어낼지, 부포의 뻐끔질 등의 형태를 몸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해체된 도구를 직접적으로 몸에 다양한 형태로 착용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연희자들이 연주할 때의 손 모양을 착안하여 동작을 구성하거나 실제 사자탈춤의 동작들을 사자탈이 없이 오직 몸으로만 표현할 수 있도록 창작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긴>을 안무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전통을 어떻게 재구성하여 현대적인 모습으로 재창작될 수 있을까?” 입니다. 그리고 연희에서 사용되는 여러 도구와 악기, 연희자들의 움직임들을 재구성하는 방법, 연희자와 무용수가 무대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에 대해 생각하며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작품내용
Programs

긴 무대, 관객은 패션쇼장에 온 것처럼 무대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마주 보고 앉아 있다. 공연은 연희자가 입는 복식의 다섯 가지 '오방색'에 대한 전통적 의미를 참여 예술가들이 현대에 느끼는 감정으로 해석하여 진행된다. 전체적인 구성은 음악적 해석인 기경결해起輕結解 (내고, 달고, 맺고, 풀고)로 풀이된다.



白 흰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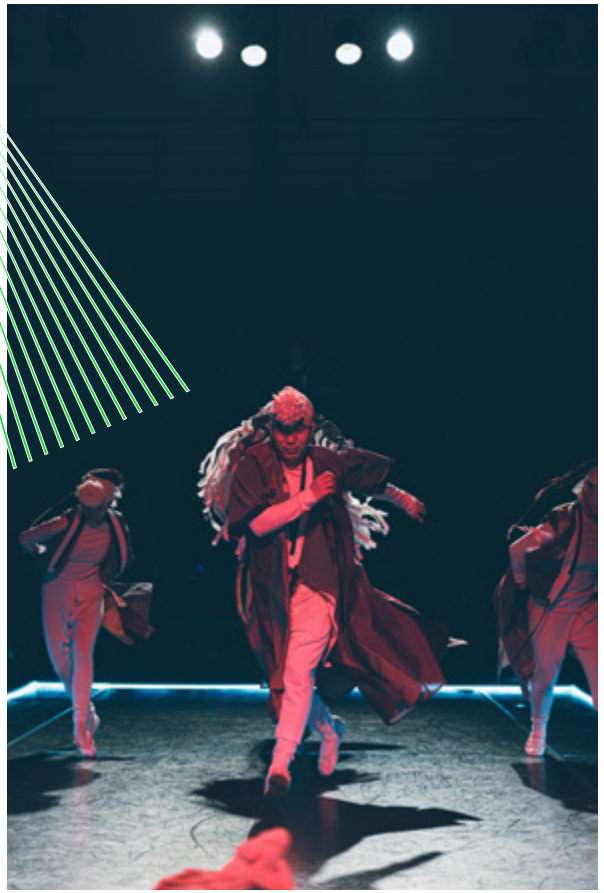
흰색은 무이며 처음이다. - 기起: 내다.

"서쪽, 무를 상징하는 오방색 중 흰 백(白). 흰색은 끝이자 처음이다. 백지 위에 그림이 그려진다." 긴 무대가 보이고 미니멀한 기계음의 음악이 들린다. 색을 모두 뺀 하얀 복식을 한 배우들은 긴 무대를 왕복하며 연희를 한다. 처음 연희를 시작했을 때처럼 모든 것을 덜어내고 여백의 미를 살린 발림과 반복적인 몸짓은 가장 순수한 연희의 DNA를 나타낸다. 동작, 굴신은 현대 무용가에 의해 변형되고 재조합되어 상모와 부포를 만나 다시 해석된다.

靑 푸를 청

차가운 평화로움 – 경景: 달다.

"봄, 기쁨, 바람, 너그러움의 푸른색." 청색은 평화로움과 동시에 차가운 색이다. 징 소리의 파장과 쇠 악기들로 "청"이 시작되고 연주 동작의 에너지가 움직임으로 발전된다. 움직임은 다시 도는 행위로 확장되고 연풍대를 돌며오히려 원심력을 느끼고 그 원의 중심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원으로 도는 행위와 원이 가지는 이미지는 연희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외부에서 볼 때는 불안해 보이지만정작 당사자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며 평화로움이 역설적으로 표현된다. 황해도 굿에서 "맴돌기" 라고도 불리는 연풍대 동작과 변형을 반복하며넘실대는 파랑을 표현하고, 악기와 상모 등의 오브제 변형을 통해 다양한 느낌을 꾀한다.



赤 붉을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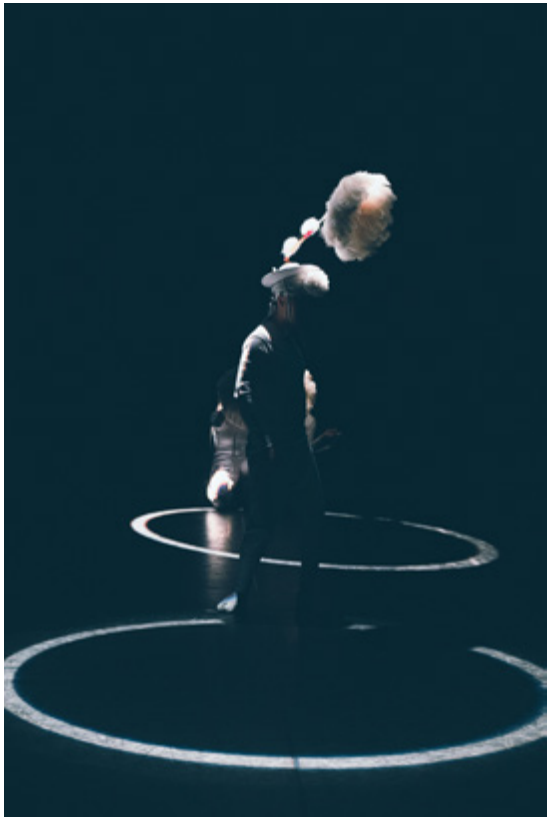
폭발적 즐거움 –결結: 맺다.

“한낮, 웃음, 즐거움, 밝음의 붉은색.” 배우들은 긴 무대를 뛰어다니며 장단에 얽매이지 않고 상모돌리기 등의 행위를 통해 더 자유롭고 빠르게 움직이며 몸을 해방시킨다. 폭발적 즐거움을 표현하기에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 던지고 미니멀하게 최대한의 혈기왕성을 표현한다. 공연 중 가장 에너지 있는 장면으로 배우들과 함께 해석한 붉은 폭발적 에너지를 앉은반 악기연주와 무대의 끝과 끝을 뛰어다니는 빠른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黑 검을 흑

두려움은 불현듯 나타났다 사라지고,
또 다른 형태로 다가온다. – 0

“밤, 겨울, 두려움, 차가움을 상징하는 검정색.” 흑[黑]은 공연의 한 넘버로서 존재하지 않고 흰 백, 붉을 적, 푸를 청 등이 진행되는 공연 중간중간 느닷없이 나타난다. 인 아웃을 반복하는 조명과 함께 불현듯 열두 발을 던지는 연희자의 모습이나 혼자 남은 부포 놀이의 모습 등이 나타났다 다시 사라진다. 갑작스러운 침묵 속에서 그어지는 차가운 아쟁 활 소리등이 서늘함을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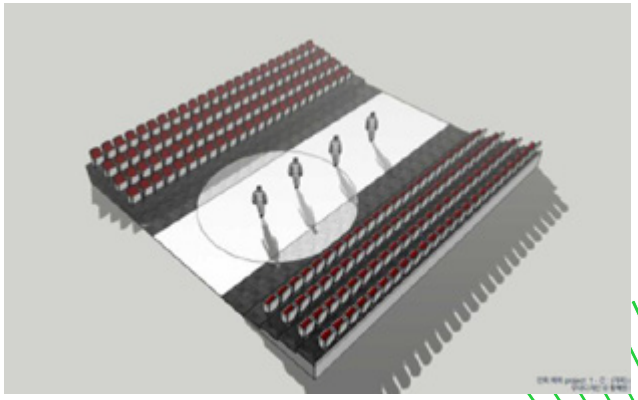
黃 누를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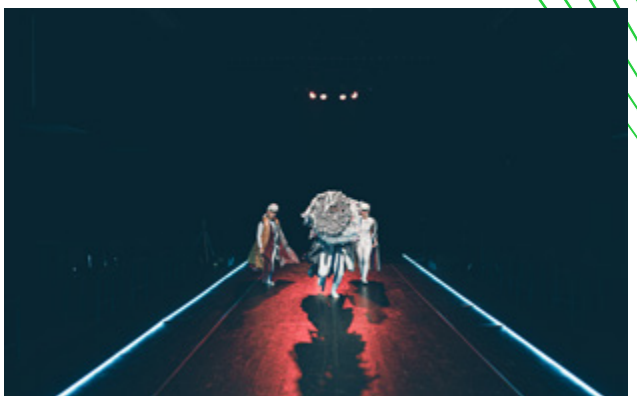
모든 색은 어우러진다. - 해解: 풀다.

“한낮, 웃음, 즐거움, 밝음의 붉은색.” 배우들은 긴 무대를 뛰어다니며 장단에 얽매이지 않고 상모돌리기 등의 행위를 통해 더 자유롭고 빠르게 움직이며 몸을 해방시킨다. 폭발적 즐거움을 표현하기에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 던지고 미니멀하게 최대한의 혈기왕성을 표현한다. 공연 중 가장 에너지 있는 장면으로 배우들과 함께 해석한 붉은 폭발적 에너지를 앉은반 악기연주와 무대의 끝과 끝을 뛰어다니는 빠른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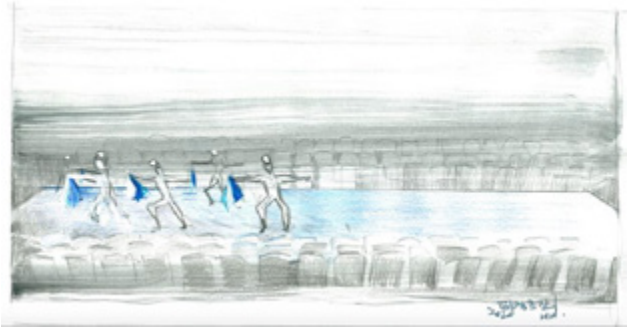
무대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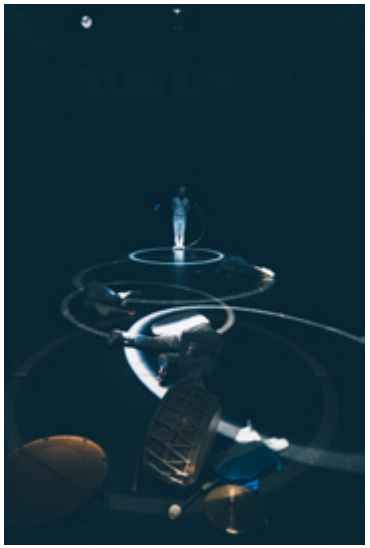
변이된 형태의 무대를 제시함으로써 나타나는 발림의 변화, 새로운 진(陣)의 가능성을 배우들과 함께 찾는다. 달라진 무대로 인해 연희자들의 몸짓은 관객에게 새로이 노출되고, 관객에게 다르게 보여진다는 것을 염두에 둔 연희자는 항상 하던 습관적 몸짓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연희를 표현한다. 긴 무대 위에 연희자들은 기존 무대에서 해오던 짜여있는 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도 하고, 긴 무대를 뛰어다니며 오히려 마음껏 역량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 불편함과 해방을 통해 공연은 다른 방법으로 표현되고, 전달된다. 반복과 덜음, 느림과 공백에 의해 현대에 전해지는 전통연희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나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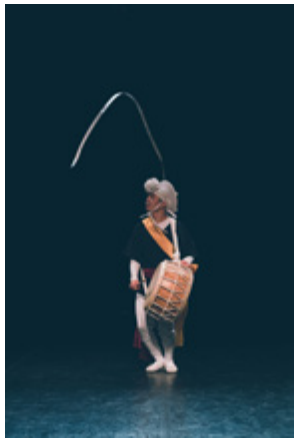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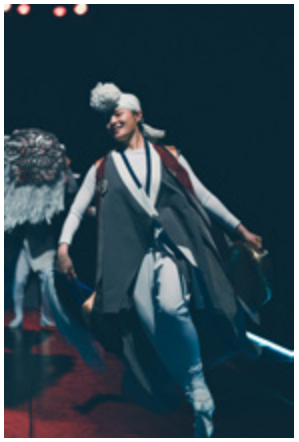




컨셉 스케치





리퀴드 사운드
Liquid sound

리퀴드 사운드는 2015년 창단하여 한국 전통 예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교류하는 단체이다. 전통예술 자체를계승하고 변화시키는 것보다, 전통이 더 확장된 예술 영역으로써 발전하고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다. 현대 무용수, 연희자, 컴퓨터 음악, 연출가, 무대미술가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공동 주제에 대해 다른방식으로 해석하는 것들을 함께 공유하여 작업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 촉각에 대한 이미지 등 흔하지 않은 소재를 제시함으로써 예술적 상상력을 고무시켜 예술적 교집합 점을 찾는 공동 창작을 한다.
한불 수교 130주년 정식 초청공연, 국제 예술교류, 독일 발노보 극장 레지던스 참가, 예술경영 지원센터 주최 JOUNEY TO KOREAN MUSIC 등의 사업과 프랑스 단체 DOREMI, 독일의 Baal NOVO 극단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유럽과 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이다.

만 드는 사람들

출연

연희
박세호, 이명모

무용
박수연, 손은교

제작

연출
이인보

안무
심주영

음악
주준영, 송지윤

무대디자인
이휘순

무대감독
김성수

조명감독
조철민

음향감독
백성희

무대크루
이유성

서울남산국악당

실장
최민호

기획홍보팀
이유정 팀장
이아랑 박예은 유예진

무대기술팀
김성수 팀장
이성헌 노익환 박영규

운영지원팀
정장미 팀장
이선하 송창선 이보라

인사이트모션

대표이사
조용태

사업부문 대표
김지욱

주최/주관
리퀴드 사운드
서울남산국악당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남산국악당은 2007년 전통공연예술의 진흥과 국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건립된 300석 규모의 국악 전문 공연장입니다.

서울남산국악당
Seoul Namsan Gukakdang